

“선거개혁 열흘내 답 없으면 한국당 패싱”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패스트트랙 상정 놓고 압박 세무안 입장 달라 단일안 먼 길...민주, 개혁법 동시 처리 추진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선전으로 여겨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28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여야 4당의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패스트트랙)에 부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전날(25일)에 이어 이날도 같은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피하기 위한 최종 협상 시한을 내달 10일로 못박으며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가운데 시도되는 여야 4당 공조는 답답한 대치 정국에 다소나마 숨통을 틔우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발언을 계기로 공조의 실마리를 잡은 여야 4당은 내진감에 선거제 개혁을 공동 과제로 삼아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민주당,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 3당의 이해가 맞닿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 3당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동

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다른 개혁 법안을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4당 간 이견을 조율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 3당은 패스트트랙 회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여당의 개혁 입법 처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데 대한 경계심이 엇보인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 외에 다른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들과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이 각자 원하는 선거제 개혁안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 역시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여부나 정

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연동 수준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당이 어렵사리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최종안을 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10여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최종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단일안 논의’ 시간도 짧아 보인다.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올해 안에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오는 3월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오늘 새 지도부 선출

황교안 우세 속 오세훈·김진태 득표율 관심

자유한국당은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향후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당 대표 경선에는 황교안·오세훈·김진태(7호 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현재 각종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황 후보가 당원들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오 후보가 일반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막판 대역전극을 이뤄낼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줄지도 관심 포인트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원내에서 조경태(4선)·김광림(3선)·윤영석·윤재욱(이상 재선) 의원과 최근 ‘5·18 망안’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정계 회부된 김순례(조선) 의원이 출마했다. 원외에선 김정희 한국무궁화회총재, 정미경 전 의원, 조대원 경기 고양시정 당 협위원장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다.

또 별도 리그로 펼쳐지는 청년최고위원 경선에는 신보라(조선) 의원과 함께 김준교·박진호·이근열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으로 구성

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및 현장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해 선출된다.

한국당은 현재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사전투표(23일)와 현장 사전투표(24일)를 마쳤고, 전날부터 26일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27일 전당대회는 전대 후보들이 현장에서 마지막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의 마지막 절차인 대의원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전날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당원 선거인단은 9만943명이고, 27일 전당대 일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이 8115명이다.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35만7405명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뿐 아니라 내년 총선 지형, 야권 재편 가능성, 야권 잠재 대권후보 경쟁구도, 대야 관계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황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당내 친박계가 다시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오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비박 진영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형님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新 한반도체제 주도, 초당적 협력해야”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신(新)한반도 체제’를 부각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롭게 펼쳐질 평화 정착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며 “북미 양자 간 평화선언이나 종

전선언 합의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 내부의 단합과 협력을 통해 신한반도체제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간 300억원 이상 남북협력사업의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을 거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험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은 자해행위”라며 “2차 북미회담의 성공과 화해·협력 심화를 위해 제1야당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극단적 우경화, 절치

난 색깔론 공세 등을 소재로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철승 원내부대표는 “제1야당 당 대표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가 5·18 7·27 유공자 검증 타령을 했다”며 “황당한 주장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안 하는 역사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장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날 연 집회에 한국당 일부 의원 등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5·18 망안”에 더해 유아교육 현장까지 색깔론을 가져가는 것을 보며 즐겨주시던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軍 무단 점유지 배상

당정 을 629억 투입

당정은 26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 때문에 입은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후원금 줄었다

지난해 전년보다 8% 줄어 494억...민주 노용래 1위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8년 모금한 후원금은 약 494억원으로 2017년보다 8%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8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8명(2명 제외·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 자유한국당 이근현 의원 의원직 상실)의 후원회 모금액은 493억 8290만 7163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571만 4454원이었다. 의원 전체와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99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보다 각각 8.7%, 8.4% 줄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29명)의 총 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각각 261억8358만 297원, 2억297만 297원으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모금액이 2017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대폭 줄어들지 않은 것은 두 해 모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2018년 제7회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별로 민주당 노용래 의원이 3억

2379만 297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가장 많이 모금액 3억 788만 297원으로 전체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3206만 297원으로 가장 적은 후원금을 모았다.

전국적으로는 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28만 297원의 모금액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43억7800만 297원(평균 4억8648만 297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정의당이 16억9400만 29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중당(13억9900만 297원), 대한애국당(4억5200만 297원), 민주당(2억 7000만 297원), 녹색당(1억9400만 297원), 노동당(1억8900만 297원), 우리미래당(1억5600만 297원), 바른미래당(1500만 297원), 평화당(600만 297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상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상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15일(금) 16:00
2. 장 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본사 회의실
3. 보고사항
 -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31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미처리결산금 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견결정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광양선박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3(중동) 각자대표이사 이경희, 김형곤